2009. 23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협소식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 호 TEL 02 • 777 • 2013 / 757 • 7851 FAX 02 • 778 • 7427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 r
발행일 : 2009. 11. 9 발행인 : 한홍순



제42회 평신도 주일

싣는 순서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3
-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6
  -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8
  -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8
  -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9
  - 〉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2
  -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2
- 한국평협 회원 단체
  - 〉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 14
  - 〉 한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14
  - 〉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 15
  -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15
  - 〉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16
  -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17
  - 〉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 18
- 교황님 말씀 19
-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20







알 림

◎ 11월 20(금) ~ 21(토) 1박 2일간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회관에서 제4차 한국평협 상임위원회의가 개최됩니다.

◎ 11월 21일(토) 오전 10시 30분 부터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회관에서 「2009 사회포럼-노동과 기업경영」이 개최됩니다.

◎ 11월 27일(금) 오후 5시 서울대교구 명동성당 소성당에서 제4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최양업 신부의 업적 재조명하는 학술포럼 열어



두 번째 한국인 사제인 최양업 신부의 서품 160 주년과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선포한 사제의 해를 맞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 민병덕 신부)는 한 해에 7천리를 숨어 걸으며 5개 도(道)에 걸쳐 100 개가 넘는 공소를 직접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길 위의 사제',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의 삶, 특히 우리의 말과 노래를 도구로 삼아 천주교를 토착화하며 우리 문화에 남긴 업적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학술포럼을 열었다.

이날 참석한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오늘은 조선교구가 설정된 뜻깊은 날"이라며 "이런 뜻깊은 날 교회의 선각자인 최양업 신부님을 현양하는 학술포럼을 열게되어 더 의미가 있다"고 격려했다.



지난 9월 9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는 「최양업 신부의 신앙과 영성」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착한 목자요 사랑의 사도였던 최양업 신부로 인해 한국교회는 순교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었다"며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은 최 신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며, 오늘을 계기로 한국교회에 더 많은 착한 목자가 배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주교회의 시복시성특별위원회 총무 류한영 신부는 「최양업 신부의 사향가에 나타난 선조들의 신앙과 영성」을 주제로 "최양업 신부는 쉬운 우리말로 된 천주가사를 저술하거나 보급한 사람이 분명하며, 특히 〈선종가〉, 〈사심판가〉, 〈공심판가〉는 직접 저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최양업 신부의 사향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천주가사」를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 언어학과 조원형 박사는 "텍스트언어학적 관점에서 천주가사를 분석할 때 〈사향가〉는 제시부에서 두 가지 주제를 연달아 제시하고 전개부에서 상세히 풀어 논한 뒤 재현부에서 다시 원래의 주제를 설명하는 방식인 서양음악의 소나타 형식과 동일한 텍스트 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이와 같은 텍스트 구조를 고안하여 갖가지 천주교 교리를 조리 있게 설파했다는 것은 저자의 신앙 지식과 글쓰기 실력이 모두 수준급이었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향가〉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현재까지 불분명하지만 최양업 신부가 천주가사를 사목 활동 가운데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개연성은 있다"며 "중요한 것은 천주가사를 통해 현재 우리가 선교활동을 할 때 단순히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에 몰두하지 않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점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가톨릭 교회음악과 최양업 신부」를 주제로 발표한 충남대 강사 양인용 선생은 발표 첫머리에 "최양업 신부가 어떤 음악적 활동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천주가사의 직접 저술에 대한 논란을 떠나 최양업 신부는 신학교 교육을 통해 서양음악과 전통적인 교회 성가를 실질적으로 배운 최초의 조선인 가운데 한 사람이고, 한국 가톨릭교회 안에서 음악의 중요성과 서양악기의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한 선각자였다"며 서양음악의 한국 유입시기를 천주교보다 100 년이나 늦게 전래된 개신교의 찬송가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며, 척박한 토양에서 신앙을 지켜낸 우리의 선조들이 남긴 유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할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주교구에서 제3차 상임위원회 개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9월 11일부터 1박 2일 동안 상임위원회를 갖고, 내년에 열리게 되는 '아시아 평신도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문덕영, 담당 고병수 신부)의 주관으로 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가진 이번 상임위원회 첫 날은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 특강을 시작으로 '새미은총의 동산' 순례와 미사가 이어졌다. 강우일 주교는 특강을 통해 "한국교회는 특히 평신도들이 이룩한 교회로 항상 자랑과 긍지를 갖고 있다"며 마침 9·11사태의 9주년이 되는 이 날을 통해 세계의 움직임과 교회에 대해 성찰한 뒤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가에 대해 시대에 맞춰 해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십자군의 사례를 들어 "교회가 전쟁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군대를 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며 "진정한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녁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교구평협의 활동나눔과 함께 내년에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아시아 평신도대회'를 위해 한국평협 회장단과 서울평협 회장단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대회를 잘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사제의 해를 잘 보내기 위한 지향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튿날에는 한홍순 회장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아시아 교회」를 주제로 한 특강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한 회장은 특강을 통해 "삼천년기는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신앙의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문헌의 내용을 인용, "아시아 교회에서도 특히 한국 교회가 아시아 교회의 복음화를 위해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들은 함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표착지를 순례한 다음 파견미사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다음 상임위원회는 11월 20일 서울대교구 꾸르실료회관에서 열린다.





사제의 해, 평신도들의 지향

1. 주님 안에서 사제들과 친교를 이루고 일치하여 교회 생활에 적극 참여하며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 생명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일깨워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들을 하느님 뜻에 맞게 양육하여 사제와 수도 성소에 봉헌하겠습니다.
3. 사제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사제들과 적극 협력하여 우리 자신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복음화하며, 청소년들에게 사제와 수도성소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양업 신부 현양 음악회 '이 땅이 하느님을 노래하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두 번째 한국인 사제 최양업 신부의 서품 160 주년을 맞아 최양업 신부를 현양하는 음악회 '이 땅이 하느님을 노래하다'를 지난 10월 14일 저녁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열었다. 주한 외교사절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 경건한 분위기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에는 주교회의 시복시성특별위원회와 청주교구 배티성지, 양업교회사연구소 등 교회기관들과 함께 경동교회가 후원하여 최양업 신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됐다.

박해의 탄압이 멈추지 않던 시절, 오직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목자의 사랑만으로 한 해에 7천리를 숨어 걸으며 복음을 전했던 '땀의 순교자' 길 위의 사제 최양업 신부가 하루 빨리 시복시성 되기를 기원하여 마련된 이 음악회는 최양업 신부와 124 위 한국 순교자들의 시복청원이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돼 심사 중인 중요한 시기에 마련돼 더욱 큰 의미를 지녔다.

또한 이번 음악회에는 유럽 음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곡가 박영희 교수(독일 브레멘 국립 예술대)가 최양업 신부를 주제로 이번 음악회를 위해 작곡한 두 편의 신곡 – 합창 〈주님,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소서〉와 오르간곡 〈별빛 아래…〉 –이 세계 초연됐으며 그 외 천주가사 '사향가' 재현, 아퀴나스 합당단의 합창곡과 우리맥소리 국악합주단의 국악성가, 오르간 독주와 테너 독창 등 아름다운 성음악이 연주됐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여섯 번째 사랑 · 생명 · 가정 사진공모전 열어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 민병덕 신부)가 지난 2004년 시작한 '사랑 · 생명 · 가정 사진공모전' 이 올해 대상에 충북 청주시 김세훈 님의 「가족나들이」를 선정했다.

서울평협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운동' 후속 사업으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는 사회에서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한 사진작품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를 지향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자는 취지로 실시하고 있는 '사랑 · 생명 · 가정 사진공모' 는 올해 여섯 번째를 맞아 서울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회장 임효철, 담당 최대식 신부)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찬한 가운데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총 250여 편의 작품을 접수



▲ 대상작 김세훈 「가족나들이」

했다. 심사를 거쳐 대상인 김세훈 님의 「가족 나들이」 외에 우수상에 김부자 님의 「엄마와의 첫 만남」, 최인자 님의 「수녀와 할머니」를, 가작에 강태수 님의 「모정」, 강봉수 님의 「환희」, 최순섭 님의 「할머니 발톱이 많이」를 선정했고, 44편의 작품을 입선으로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가작 3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됐고, 입선작은 상장과 기념품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0월 27일 오후 5시에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CBL 포토갤러리에서 실시됐으며, 수상작 모두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위의 갤러리에 전시됐다.

여의도에서 103위 성인 시성 25주년 기념행사

서울대교구(교구장 정진석)는 지난 9월 19일 103위 성인 시성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25년 전 시성식 미사 때 제대가 놓였던 곳에 기념표석을 세웠다.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 25주년 기념 「화해 · 나눔 · 증거의 축제」' 라는 이름으로 거행된 이번 행사는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위원장 최창화 몬시뇰)가 주최하고, 서울평협이 주관단체로 8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984년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과 103위 순교복자 시성식' 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화해의 날(5월 4일), 나눔의 날(5월 5일), 증거의 날(5월 6일) 등 세 가지 주제로 한국교회를 순례한 것을 기념하며,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화해와 나눔의 축제(헌혈, 장기기증 접수, 문화공연)', '증거의 축제(103위 시성 기념표석 축복식)', '103위 시성 25주년 기념 장엄미사' 순으로 펼쳐졌다.

이날 미사를 주례한 정진석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한국 천주교회는 '순교의 역사' 로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고 박해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신앙을 계속 받아들였다"며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신앙선조들처럼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뿐 아니라 하루하루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모범을 따르자"고 말했다.

선교분과위원 대상 올해 세 번째 선교포럼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 민병덕 신부)는 지난 9월 26일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올해 세 번째 선교포럼을 열고 서울대교구가 '복음화 2020 운동(2020년까지 신자비율 20% 달성)' 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한 선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



고 실천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선교포럼에는 서울대교구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 담당인 양해룡 신부가 '성경 공동체로서 그리스도교 초기 공동체'를 주제로 강의하고 파견미사를 집전했다.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단 지역별로 연수 실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10월 9일, 23일, 30일 저녁 각각 중서울지역 아현동성당, 동서울지역 청담동성당, 서서울지역 대방동성당에서 지역별로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단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한홍순 회장의 '평신도의 삶과 영성-평신도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아래 이 땅의 평신도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회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강



의에 이어 각 지역별 교구장대리 주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본당 사목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교구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고, 파견미사로 마쳤다.

단체 소식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

신앙세미나

서울가톨릭경제인회는 지난 9월 19일(토) 오전 7시 30분 가톨릭회관 1층 대강당에서 신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성 베네딕도회 세계적인 영성가 안셀름 그륀(Anselm Grun) 신부님을 강사로 모시고, 회원들과 수도회 재정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기를 넣는 지도 방법-베네딕도회 규칙서에서 찾는 경영원리들'을 주제로 마련됐다.



그륀 신부는 강연에서 "경영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찾아내고 섬긴다는 뜻"이라며 "다른 사람의 가치를 찾아내는 눈은 '내 안에 좋은 것이 있다'는 믿음에서 생긴다"고 강조하였다. 또 "베네딕토 성인은 재정 담당자들에게 하느님 집에서는 어느 누구도 혼란스러워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셨다"고 전했다. 그륀 신부는 "경영은 직원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이 나처럼 귀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며 "이는 경영자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잘 인식해야 다른 직원의 귀중함도 알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이 회사에서 억압을 당한다고 느끼면 가정에 돌아가 배우자와 자녀, 이웃들을 짓누르며 살게 되지만, 회사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직원은

그의 가정도 똑바로 서 결국 사회에 빛을 주게 된다"고 역설했다.

경제인회 세미나는 회원대상이지만 이번에 성 베네딕도회 한국진출 100주년을 기념해 방문하게 된 신부님의 강연을 수도자들과 함께 듣는 자리로 마련했다.

골프대회 개최

서울경제인회는 10월 12일(월) 춘천 라데나CC에서 사제들을 모시고 '제10회 회장배 사제초청 친선 골프대회'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사목일선에서 애쓰신 서품 20년 이상 되신 신부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사제 34명과 회원 59명이 참석하였고 성황리에 치렀다.

당일 참석한 신부님과 회원들은 운동을 통해 하루를 유쾌히 보냈다고 했으며, 행사를 위해 많은 회원들이 찬조를 했다. 또 타 교구 경제인회에서도 참가하여 전국적인 친선 골프대회가 됐다.

서울대교구 가톨릭 여성연합회

2009년 9월 정기월례회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회장 권경수, 담당 민병덕 신부)는 지난 9월 22일(화) 10시에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에서 9월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월례회에서는 민병덕 사목국장 신부의 미사봉헌에 이어 이화여대 양옥경(사회복지학 박사) 교수의 "생명과 사회복지"에 관한 주제 강연이 있었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윤성, 담당 김종기 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생명운동의 9월~10월 실시 결과 9월 13일 전민동본당에서 헌혈 50명, 장기기증 336명, 10월 18일 천안신부동본당에서 헌혈 31명에 이어 장기기증은 11월 말까지 계속 받기로 하였으며, 10월 25일 대산본당에서는 헌혈 34명, 장기기증 112명이 참여했다.

11월 2일 현재 각 본당과 지구에서 행해진 장기기증 등록은 3519명, 헌혈 404명, 증서기증 340명이다. 대전평협에서는 11월 말까지 2009년 한 생명 운동을 마감할 예정이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40주년 기념 음악회 열다

올해로 평협 40주년을 맞이하는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태경, 영성지도 문희종 신부)는 9월 25일 오후 8시 경기도 문화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평신도의 일치와 화합의 장을 이루는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UNITAS 협찬으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에는 권선동본당 중 · 고등부 성가대와 브라스밴드를 비롯해 수원대리



구 연합합창단 등이 참여해 음악으로 한마음을 이루는 무대를 마련했다. 또 2부에는 힙합 공연팀의 공연과 비트박스 공연 등 청소년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도 펼쳐져 500여 명의 관중을 열광시키며 풍성한 음악의 향연을 이끌었다. 공연 중간에는 역대 평협 회장단 기념축하와 앞으로 평협의 발전을 희망하는 기원의 메시지가 영상을 통하여 전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태경 회장은 많은 분들의 참여와 축하에 감사드리며 특히, 이 행사를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교구 성음악위원회 위원장 현정수 신부께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앞으로 평협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했다.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공연이 끝난 후 "40년간 평협은 교구 발전을 위해 큰 몫을 했으며 여러 사도직 심신단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치하하며 "이번 기념 음악회를 통해 평협이 더욱 발전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바란다"는 격려 인사를 전했다.

수원교구 가톨릭 경제인회(가칭) 창립준비

교구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신자 기업인, 상공인들의 모임인 '수원교구 가톨릭 경제인회(가칭, 이하 경제인회)' 가 본격적인 창립 준비에 들어갔다.

빠르게 변하는 경제 흐름 속에서 복음 정신에 따른 기업운영,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에 뜻을 모은 교구 내 신자 기업인 20여 명은 9월 5일 경제인회 창립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날 창립준비모임에 앞서 교구 총대리 이영배 신부, 관리국장 류덕현 신부, 복음화국장 문희종 신부의 주례로 교구청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이 자리에는 그동안 모임을 준비해온 평협 임원들도 함께 했다.

이날 강론에서 총대리 이영배 신부는 "경제인회가 나눔을 통한 사랑의 실천을 하느님께 선물로 드리면서, 교구 발전에 일조하는 하나의 기둥 역할을 하는데 그 존재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정태경 회장은 "그동안 염원했던 경제인회의 준비모임이 발족된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라며 "잘 준비해서 성공리에 창립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사 후 준비 모임에서는 영성지도신부로 총대리 이영배 신부가 추대됐으며, 현 천주교 안산경제인회 이래수 회장이 준비위원회 회장으로 임명됐다. 또 각 대리구마다 준비위원장을 위임했다. 경제인회는 오는 12월 5일 창립미사와 창립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경제인회는 창립에 앞서 매달 준비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단체 운영방향 정립과 회원모집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추계회장단 연수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신근, 담당 이형수 몬시뇰)는 10월 18일(일) 마산교구청 4층 회의실에서 2009년 추계 본당회장, 교구단체장연수를 열어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성특강과 평신도주일을 비롯한 후반기 사업 그리고 2010년의 중요사업을 논의했다.

특별히 한국최초의 미사봉헌지인 진해웅천의 남산왜성을 성역화하고 교회역사를 바르게 알기위하여 '세스페데스 신부의 방한과 사목활동' 이라는 주제로 신은근 신부(호계성당 주임)의 특강을 묵상했다. '소명' 이라는 주제로 준비된 특강은 교구 평신도지도자들이 신앙의 뿌리를



바로 알고 자부심과 긍지로 새로운 교회역사와 성역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기 위한 과정으로 준비됐다.

세스페데스 신부(예수회, 스페인)는 임진왜란중인 1593 년 12월27 일 진해 웅천에 도착하여 남산왜성과 사도마을, 와성마을의 인근마을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선교활동을 했다. 또 조선인 포로 가운데 세스페데스 신부에 의해 세례를 받고 예수회에 입회한 한국 최초의 수도자인 권원선시오 수사는 일본에서 시복된 순교자로 기록되고 있으며 수많은 조선인들이 입교한 사례는 한국천주교회의 새로운 역사로 인정돼야 하는 마땅하고 옳은 사건이다,

사실 1784 년 한국교회의 공식적인 시작보다도 200 여년이 앞선 교회역사로서 하나의 밀알이 마산교구에 뿌려진 것이다. 진해 왜성은 성지로서의 그림 같은 풍광과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신비로운 보물이 묻혀 있는 곳이다. 일본군의 군종신부로 파견됐다는 이유와 일본에 대한 잘못된 감정으로 인해 그저 잊히고 있거나 무관심이나 잘못된 이해관계로 소중한 교회역사를 부정하는 현실을 반성해야만 한다. 따라서 마산평협은 연례행사로 첫 미사 봉헌지인 왜성에서 성역화를 기원하는 산상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하기로 했다.

또한 강신근 회장은 '사명' 이라는 주제로 2009 년의 평신도의 사명을 다하여 평신도의 시대를 열기위한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며 2010 년의 중요사업을 논의하고 새로운 시작을 호소했다. 담당사제 이형수 몬시뇰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평신도그리스도인' 의 모범으로 교회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느님께서 보시고 참 좋으신 교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마산지구 복음화아카데미

복음화아카데미는 1030 운동의 달성을 위한 현장선교 실무교육의 장이다. 진주와 창원지구에 이어 마산지구 복음화아카데미가 지난 10월 19일(월) 양덕성당에서 열렸다.

이날은 강신근 회장이 복음화아카데미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교구 활성화에 평협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과 평신도들의 참여를 당부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담당사제인 이형수 몬시뇰의 선교원론 특강으로 이어졌다.

이 몬시뇰은 "선교란 삶으로 복음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것이며 평신도들이 그 사명을 잘 살아갈 때에 교회는 살아난다. 복음을 삶의 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얻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석자 복음화분과위원장은 '선교와 복음나누기' 라는 주제로 "소공동체 안에서 복음나누기를 제대로 할 때에 교회도 발전하고 선교 열매도 맺어진다"며 복음나누기를 새롭게 조명하고 선교체험과 선교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선교사례를 통하여 선교에 대한 사명의식을 고취시키고, 의견나누기와 파견미사를 통하여 선교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으로 복음화를 위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제20-10차 교구평협회의와 제20-8차 상임위원회의

2009 년도 후반기 사업을 집중조명하고 2010 년의 새로운 비전적 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토론을 위하여 지난9월 25 일 제10차 교구평협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최초의 미사봉헌지인 진해웅천

남산(왜성)의 성역화를 기원하는 산상미사를 오는 11월 7일(토)에 갖기로 했다. 또한 복음화대상을 위한 시상규정을 심의했으며, 2010 년의 사업으로 교구장의 사목교서에 맞추어 순교자 올레길 순례 프로그램, 순교자영성 심포지엄, 사제의 해를 위한 성직자 묘역참배와 기도하기, 워크숍, 평신도 대회 등 평신도지도자의 리더십과 순교영성을 위한 사업을 채택하고 성공적인 사업실천을 다짐했다.

또한 교구평협 회의에서 토의된 사업을 심의하고, 보다 구체적인 토의를 통해 승인하는 제8차 상임위원회의를



10월 30일(금)에 마산교구청 4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상임위원회의에서는 2010 년의 사업을 승인하고 평신도사도직 운동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또한 정기총회를 통하여 순교영성으로 평신도운동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성화되기를 기원했다. 특히 교회일치를 통해 교회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모두가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했다.

바오로의 해 폐막미사

사도바오로 탄생 2000 년을 기념하는 바오로의 해를 맞아 마산교구에서는 여러 가지 바오로사도의 선교열정을 본받기 위한 교육과 행사를 실시했는데 특별히 2008 년 10월에 실시한 '바오로문화제' 와 이번 '바오로의 해 폐막미사' 는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신근, 담당 이형수 몬시뇰)에서 성공적으로 주관했다.

지난 6월 27일 마산실내체육관에서 3,500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된 '마산교구 바오로의 해 폐막미사' 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부속 행사로 다양한 교육과 행사를 실천했기에 그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이 됐다. 이번 폐막미사는 '청소년음악제' '그림그리기와 글짓기 전시회' '바오로서간 성경필사본 본당별 전시회' '성경퀴즈 골든벨' '영성특강' , '폐막미사' 로 구성하여 열광적인 반응과 성공적인 대회로 마칠 수가 있었다.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 성경쓰기' 는 각 본당별 부스를 설치해 모두 함께 바오로사도의 열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림그리기와 글짓기' 는 각 본당별로 실시해 우수작을 폐막미사에서 전시하고 폐막미사 중에 시상하는 축제로 승화시켰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에 관한 '성경퀴즈 골든벨' 은 각 본당에서 선발된 우수한 대표자가 참석하여 200 명의 결선참여자들이 각 본당의 열띤 응원 속에서 결선대회를 갖는 뜨거운 호응으로 행사의 열기를 높여줬다. 이어서 '사도바오로의 선교열정' 이라는 주제로 인천교구 차동엽 신부의 영성특강으로 완전무장을 하고 지난 일 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폐막미사' 에서 사도바오로의 회심과 선교열정을 묵상하는 마산교구복음화의 새로운 잉태를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교구장인 안명옥 주교가 주례하고 40여명의 교구사제가 공동 집전한 폐막미사에서는 '마산교구의 새로운 희망을 사도바오로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시는 교구장님의 메시지' 를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특별희년의 전대사를 받으며 은총의 해를 마감했다.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5회 게이트볼대회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대환, 담당 안상기 신부)는 10월 10일 안동시 체육공원 게이트볼 구장에서 제5회 교구장 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타 교구보다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은 교구 특성에 맞춘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로 2004년부터 시작하여 본당별 게이트볼 구장 설립과 동호회 구성으로 게이트볼 활성화를 이루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전교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대회는 각 본당 어르신 5-6명으로 팀을 구성해 본당신부의 추천을 받은 목성동 주교좌 성당 등 18개 팀 110여 명의 선수와 200여 명의 본당별 응원단이 참가 했다. 5개 시군의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초청된 전문 심판요원들의 공정한 심판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리그전을 거쳐 12개 팀이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 안동 태화동 본당이 우승을, 문경 모전동 본당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최고령인 92세의 목성동본당 선수로 출전한 조명훈(요셉) 옹은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경기에 참가한 어르신들에게는 기념타올과 신종플루 예방 마스크를 선물했고, 본당별로 준비한 음식과 평협에서 제공한 떡, 과일, 음료, 고등어구이 등을 나누며 경기의 승부를 떠나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일치와 화합을 다지고 따사로운 가을 햇볕 아래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폐회사에서 "지난 9월 20일 교구 설정 40주년 감사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교구 역사와 함께한 어르신들의 역할이 컸으며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50주년, 100주년을 향한 디딤돌이 되어 줄 것 을 당부하면서 교구 차원에서도 어르신들에게 교회나 사회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국인 첫 사제 "성 김대건" 창작무용 공연

9월 순교자성월을 맞아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기수, 담당 박성열 신부)는 성 김대건 신부의 순교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본받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의 한국인 첫 사제 "성 김대건" 창작무용 공연을 9월 20일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를 모시고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가졌다. 특히 이날 공연 수익금 전액은 교구 순교자현양회 기금으로 조성하여 더욱 의미 있는 공연이 됐다.



▲공연 포스터

단체 소식

여성산악인회 성지순례

천주교광주대교구 여성산악인회(회장 위현숙, 담당 박성열 신부)는 지난 9월 11일 6개 반 회원 120명이 배론성지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수녀님의 강의로 영성을 다지고 성지순례로 순교성인의 뜻을 헤아려 더욱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도록 다짐했다.



▲배론성지에서 여성산악인회 기념촬영

성 프란치스코 축일 축제 한마당

재속프란치스코 광주지구(회장 김영임, 영적보조자 심종민 신부)는 세라핌적 사부이신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을 맞이하여 10월 10일 장성 재속프란치스코 광주지구 회관에서 형제적 친교를 나누는 축제 한마당을 열었다.



▲사부이신 성 프란치스코 성화 입장

스테파노 곱비 신부 초청 다락방 기도 전국 순회 피정

천주교광주대교구 마리아사제운동(M.S.M) 다락방기도모임(회장 임경숙, 담당 손병현 신부)은 '사제의 해'를 맞이하여 마리아사제운동의 창시자인 스테파노 곱비 신부가 내한하여 전국 순회피정 중, 광주대교구에서는 10월 12일 염주동성당에서 하루 피정을 가졌다. 광주대교구 다락방기도모임은 지난 6월25일 교구장으로부터 평신도사도직 단체로 정식 인준을 받아 개인과 가정성화, 사제를 위한 기도를 통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일치하여 주님의 합당한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의 강의 때의 전경

파티마 성모발현 92주년 기념 전국대회

광주대교구 파티마의세계사도직(회장 김재중, 담당 한덕수 신부)은 파티마 성모발현 92주년 기념 전국대회를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봉헌미사"를 주제로 10월 13일 염주동성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회를 통해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을 널리 알리고, 자녀로써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세계를 봉헌함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생동감 있는 복음적 삶을 실천하도록 일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했다.



▲퇴장하시는 성모님께 환호하는 교우들

추계성령대회 개최

광주대교구 성령쇄신봉사자회(회장 조상현, 담당 정대영 신부)는 10월 26일 염주동성당에서 추계성령대회를 열었다. 이날 황창연 신부(평창 성 필립보 생태마을 관장)의 열렬한 강의로 많은 호응을 얻은 시간이었다.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

생명과 축복의 돌봄 30년 참간호 구현
가톨릭간호사협회 창립30주년 맞아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김남초, 담당 최영식 신부)는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생명과 축복의 돌봄 30년" 이라는 주제로 8월 29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1층 홀에서 개최했다.

기념미사는 전국 가톨릭간호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교회의 보건사목담당 김운회 주교와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최영식 신부, 대구대교구 손기철 신부, 대전교구 신인수 신부의 공동 집전으로 거행되었으며, 신림4동 본당 이승주 신부 기념특강이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김운회 주교, 최영식 신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이원희 대한기독간호사협회장, 이강추 대한가톨릭약사회장, 김혜자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교구 이경희, 대전교구 이인우, 인천교구 주성자 간호사가 모범 가톨릭간호사상을 수상했으며, 대전교구와 수원교구가 우수교구상을 받았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지난 3월 개원한 서울성모병원을 둘러본 뒤 각 교구별로 마련한 특기공연과 특별공연을 선보이며 30주년을 자축했다.

김남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회는 지난 30년간 전국 14개 교구의 약 25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로 성장했다"면서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치유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돌봄을 실천하는 의료 공동체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발전사 사진전이 함께 열렸으며,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30년사' 도 발간됐다.

한국가톨릭 경제인협의회

전국회원 피정



한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는 지난 7월 2일 회의 결정에 따라 전국회원피정을 10월 22일(목)~23일(금) 1박 2일로 전남 구례의 '지리산 KT수련관' 에서 실시했다.

총 8개 교구 회원과 부부 120명이 참가한 이번 피정은 첫째 날 협의회 담당사제이신 조학문 신부 강의와 전국회원 친교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둘째 날은 지리산자락의 늦가을 공기를 마시며 아침기도로 일정을 시작하였고, 두 번째 강의로 최창무 대주교의 강의가 이어졌다. 최 대주교는 강의에서 "이 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룩과 같은 존재"라며 교황님의 회칙을 중심으로 사회교리를 설명해 주셨다. "우리 신앙인들이 시대의 징표를 바라볼 수 있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광채로 현실을 진단하고(성찰의 원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처방이 나오면(판단의 기준) 이제 투신하여(실천적 규범) 신앙의 증인(순교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아울러 로마서 12장 21절의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라' 는 성경말씀을 인용하면서 "진리 안에 사랑을 실천

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도 살고 이웃도 살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기에 우리가 초대받았다"고 말했다.

강의 후 최 대주교가 주례하고 조학문, 손병현 담당사제가 공동 집전하는 파견미사가 봉헌되었고, 참석자 전체 기념촬영을 한 뒤 행사를 마무리했다. 짧은 일정이었으나 전국 경제인 회원들이 함께 하는 첫 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이후 각 교구는 지리산 노고단을 찾아 가을산을 등반하며 물들어 가는 단풍경치를 함께 즐겼다.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

전국 가톨릭 정착마을 사목 연합회 2009년도 결산총회 실시

한국가톨릭나사업연합회는 지난 10월 26~27 일 서울 성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전국 가톨릭 정착마을 사목 연합회의를 개최했다. 결산총회는 교회 회장, 마을 대표, 지부장들이 참석하여 임원회의, 음악피정 등으로 진행됐다.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레지오 마리애 2단계와 3단계 교육수료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단장 팽종섭, 담당 민병덕 신부)에서는 9월 18~20 일 제2단계 교육을 의왕시 아론의 집에서 실시했다. 이 교육에는 1단계를 수료한 78명이 참석하여 개회미사를 봉헌하고 타종교에 대해 공부했다. 첫 강의는 '불교'에 대해 전 대구 가톨릭대 교수 이홍근 신부가 강의를 했다. 불교가 깨달음이 중요한 화두라면 그리스도교는 회개와 활동을 통해 나눔과 사랑을 전달하는 종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을 통해 함께 나아가는 종교라고 정의를 해 주셨고 유교는 마태오성당 주임 이근덕 신부께서 강의를 통해서 유교의 근본이념은 자신의 근본이념인 덕을 밝히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며 항상 선함이 나에게 떠나가지 않도록 근신하는 것이 첫째 덕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신흥종교는 미래사목연구소 차동엽 신부가, 무속신앙은 고려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노길명 교수가 강의를 했다. 이어진 3단계 교육은 10월 9~11일 2단계와 같은 장소인 의왕시 아론의 집에서 실시했는데 2단계를 수료한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강의는 조규만 주교가 마리아론을 구체적인 예화를 들어가면서 아주 쉽게 해설하는 강의를 했고, 현대 사목과 공의회 문헌에 대해서는 서울대교구 사목국장이며 서울 세나뚜스 민병덕 담당 신부가 레지오 단원에게 필요한 교회법에 대한 내용과 공의회 문헌에 대해 강의했다. 레지오 단계 교육의 마지막 시간에는 서울 세나뚜스 팽종섭 단장이 참 그리스도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레지오 단원들의 봉사 자세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병덕 신부는 파견미사 강론을 통해서 "1, 2, 3단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 종교에 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고 타종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복습을 했다. 이제 다시 일선에 파견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익힌 내용을 깊이 되새기면서 미사 영성체 성무일도 기도로 성모



신심을 더욱 굳건히 하여 교회역사에 크게 기여하는 사도직 단체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9년도 제2차 가톨릭 교리교육 성료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는 10월 6일(화)부터 10월27 일(화)까지 가톨릭회관에서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김영주 수녀가 전 단원을 대상으로 제2차 가톨릭 교리교육을 실시했다. 첫 날은 '저는 믿나이다', 둘째 날은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셋째 날은 '그리스도인의 삶', 넷째 날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하여 특유의 유머를 곁들인 명쾌한 설명으로 듣는 이들로 하여금 폭소와 감동을 자아내었다. 특히 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아이콘과 함께 훌륭한 시어로 표현해 보여줬다. 이번 특강에 제2차임에도 불구하고 연 인원 615 명이 참가, 143 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한국 가톨릭언론인협의회

언론인신앙학교 10주년 기념행사

가톨릭 언론인 신앙학교 1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9월 1일 서울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렸다. 한국가톨릭 언론인협의회(회장 김지영)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회원 120여 명과 함께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허영엽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신부, 김영춘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지도신부, 고준석 가톨릭신문출판협회 신부가 참석했다. 행사는 정 추기경이 집전한 기념 미사로 시작했다.

정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신앙학교 발전을 위해 애써 준 모든 이들께 하느님 축복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축원하고 "가톨릭 신앙을 가진 언론인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말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추기경은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증거하고 말씀하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라며 "가톨릭 언론인들은 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정 추기경은 이어 "미디어는 분부시게 발달했지만 인터넷 같은 경우 무분별한 악담과 악평으로 억울한 이를 더 큰 비극적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공동선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행태가 우리 안에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정 추기경은 "이런 미디어 환경 속에서 가톨릭 언론인들은 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하며, 미디어가 진리를 전파하고 공동선을 행하도록 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별관에서 이어진 기념식에서 정 추기경과 언론인협의회 전 · 현직 회장들, 참석한 사제와 함께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언론인 신앙학교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가톨릭언론인 협의회 초대회장 김성호 형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회원들은 지난 10년간, 20기에 걸쳐 신앙학교를 수료한 348명의 명단과 연락처가 든 회원수첩을 받고, 언론인 신앙학교의 지난 10년간 역사를 보여주는 영상물을 시청했다. 기념행사는 남성 4중창단인 비바보체의 흥겨운 축하공연, 각 기수별 장기자랑에 이어 만찬으로 이어졌다.

한편 언론인협의회는 8월 30일 제21기 수강 신청자 23명을 대상으로 가톨릭 언론인 신앙학교를 개강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명동성당 가톨릭회관 2층 강당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가톨릭 언론인협의회는 지난 1999 년부터 연간 두 차례씩 10주간(주중 한 차례 100 분씩), 신자 언론인을 대상으로 신앙강좌를 열고 있다.



정진석 추기경이 신앙학교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지도신부들, 전 · 현직 가톨릭언론인협의회 회장들과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언론인 산악회 단천성지 순례와 설봉산 등반

매달 전국의 성지를 순례하고 성지 부근에서 등산을 하는 가톨릭언론인 산악회가 지난 9월에는 47차 행사로 경기도 이청시 호법면 단천 1리 단천성지를 순례했다. 회원들은 성지순례후 인근 설봉산을 올랐다. 또 10월에는 무명 순교자들의 줄무덤이 있는 충남 천안의 성거산 성지를 순례했다. 이날 회원들은 성지 아래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언론인협의회 직전 회장 김홍 베드로 형제(전 KBS 부사장)의 농가를 방문했다. 퇴직 후 부인과 함께 고향인 이곳에 내려와 살고 있는 김 형제는 이날 회원들을 초청, 사방으로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뜰에서 푸짐한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회원들은 이날 늦가을 자연의 정취를 흠뻑 만끽하고 즐기며 주님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린 뒤 상경했다.



가톨릭언론인 산악회 회원들이 성거산의 줄무덤 성지를 참배하고 있다.

가톨릭 신문출판협의회 월례미사와 커뮤니케이션협회 성지순례

가톨릭 신문출판 협의회(UCIP. 회장 황진선)는 9월 17일 낮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가톨릭신문사 교우회 주관으로 월례미사를 봉헌했다. 미사는 가톨릭 신문사 주간인 이상재 신부가 집전했다. 또 10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한겨레신문사 교우회 주관으로 월례 점심미사를 봉헌했다. UCIP는 매월 한차례 점심시간을 이용해 월례미사를 봉헌해오고 있다. 또한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SIGNIS.회장 오광성) 회원 48명은 지난 10월 24일 충북 진천 배티성지로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 SIGNIS는 방송, 통신, 인터넷, 영화, 광고매체 등에 종사하는 언론인회원들로 구성돼있다. 활자매체중심의 UCIP와 전자 및 전파매체중심의 SIGNIS는 평소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가톨릭언론인 협의회 명칭 아래 함께 모여 여러 가지 행사를 실행하고 있다.

언론인 예비신자 세례식

지난 10월 10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언론인 예비신자 24명에 대한 세례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영춘, 고준석 두 신부가 주례했다. 이날 세례받은 언론인들은 지난 8월 31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평화방송사 6층 교육관에서 예비자 교육을 받아왔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남미지역 조정관 방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총이사회 남미지역 조정관인 훌리오 세자르 마커스 데 리마(Julio Cesar Marques de Lima) 형제가 10월 16~25 일까지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한하여 10월 23일 신 제주성당 빈첸시오 협의회 정기회합에 참석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정해정 회장과 제주교구이사회 허봉익 회장과 면담하고 신 제주성당 빈첸시오회 영적지도자인 양영수 신부를 예방했다.



회합에 참석한 훌리오 회장은 자신이 소속한 브라질 국가이사회의 활동현황을 소개했다. 훌리오 회장은 브라질 이사회와 한국이사회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전 세계의 빈첸시안이 연대하여 지구상에서 가난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는 브라질 국가이사회와 회원교육 자료의 교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

WUCWO 아시아 · 태평양지역 총회 1주년 기념식

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회장 권경수, 담당 민병덕 신부)는 지난 10월 27일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WUCW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개최 1주년을 맞아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의 의미와 그 후속 실행에 대해 재조명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담당사제인 민병덕 사목국장 신부와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의 안인성 신부 공동집전으로 개회미사를 봉헌하고, 현 필리핀여성협의회 아멜리타 고(Dr. Amelita Go) 회장과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 권경수(헬렌) 회장의 필리핀지역 및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의 2009년도 활동보고가 있었다.

또한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재난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후원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에서는 "평화를 일구는 여성 – 믿음과 행동 안에 일치하며"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명의 존엄, 여성에 관한 폭력 근절, 이주 노동자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황님의 유머 I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교황 요한 바오로 1세의 말씀을 모은 책 '루치아니 교황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공심판 날 몇몇이서 주님께 나아가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희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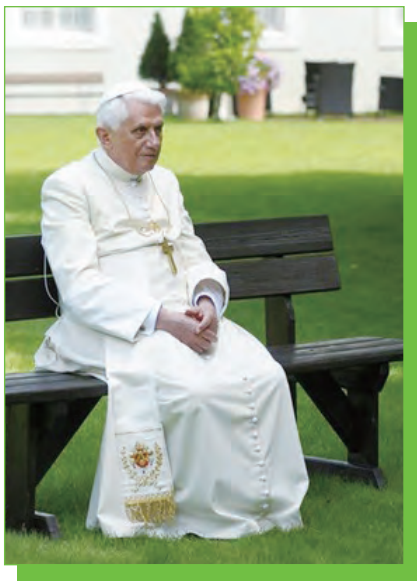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아니, 주님, 저희를 몰라 보세요? 저희는 저 아래 세상에서 주님의 예언자였지 않아요. 저희는 성체거동에도 참여했고…, 본당의 단체에서도 활동했고… 사목협의회에서도 일했고… 본당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만 안다."

교황님 · 말씀

교황 베네딕토 16세 2009년 11월 1일 주일
모든 성인 대축일 삼종기도 훈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주일은 마침 모든 성인 대축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은 순례 길을 걷고 있는 지상 교회로 하여금 천상 공동체의 영원한 축제를 맛보도록 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되살리도록 초대합니다. 올 해로 로마의 가장 유서 깊고 유명한 유적의 하나인 판테온이 그리스도교 예배 장소로 바뀌어 "동정녀 마리아와 순교자들(San cta Maria ad Martyres)"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지 14 세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교도의 모든 신들의 신전이 요한 묵시록이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 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묵시 7, 14)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장소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 후 모든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축제가 성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인"(묵시 7, 9) 모든 성인들에게 확대되었습니다. 올 해는 사제의 해인 만큼 저는 특별한 존경심을 갖고 성인 사제들을, 교회가 영적 사목적 덕행을 실천한 모범으로 성인 품에 올린 이들과 주님께서 아시는 이들보다 훨씬 많은 이들을 모두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를 도와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해 주었고 하느님의 선하심과 가까이 계심을 느끼도록 해 준 몇몇 성인들에 대한 기억을 고마운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선종한 모든 신자들을 해 마다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곧 빠스카 신비에서 오는 빛 속에서 지내시도록 권합니다. 그리스도님께서는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 생명과 평화의 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 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는 그분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 곳에 반가이 맞아들여 집니다. 그러므로 묘지를 찾아 볼 때, 그 곳 묘소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유해만이 최후의 부활을 기다리며 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들의 영혼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미 "하느님의 손안에 있습니다."(지혜 3, 1) 그러므로 이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가장 알맞고 효과적인 방법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실천하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희생제사에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전구하며 다시 만나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영원히 누리기를 기다리며 참으로 친밀한 통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성인들의 통공은 얼마나 멋지고 위안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온 생애에 색다른 차원을 불어 넣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두철미 연대성이 실천되는 영적 "동아리"의 일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익은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되며 그 반대로 공동의 행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춥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우의를 통해, 특히 교회의 영적 공동체에서 얼마쯤 체험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님께서 우리가 성덕의 길을 서둘러 걸어 나아가도록 도와 주시기를, 그리고 선종한 영혼들의 자비로운 어머니가 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42회(2009 년)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2009. 11. 15

1. 찬미예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중 마지막 전 주일을 우리 교회는 평신도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각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전국 단체들의 협의체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아 '평신도의 날'을 지내며 활동하기 시작한 1968 년부터 마흔 두 번째 '평신도주일'입니다. 해마다 평신도주일은 그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더 철저하게 성찰하며 앞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다짐하는 귀중한 은총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 올해는 특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사제의 해'를 지내면서 우리 교회의 103 위 순교자들의 시성 25주년을 경축하고 있는 만큼 오늘 평신도주일을 더욱 뜻있게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적으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매우 충실히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이룬 가운데 "이 땅에 빛을" 비추어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며 크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인의 씨앗"(테르툴리아노)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3 25 년 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친히 한국을 찾아오시어 시성식을 집전하신 그 날의 감동을 되새기게 해주는 감사의 노래 "사은 찬미가(테 데움)"의 일화가 있습니다. 103 위 성인 가운데 한 분인 마르티노 루카 위앵 민(閔) 신부는,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로서 1866 년 병인박해 때 충청도 보령 갈매못에서 30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위앵 신부의 순교 소식을 전해들은 프랑스 고향 마을의 어머니는, 아들의 유품이 들어있는 장롱 문을 열고, 두 팔은 열 십(十)자로 포갠 다음, 무릎을 꿇고 '테 데움'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찬미하나이다. 주 하느님. …거룩하시도다. 주 하느님! …영광에 빛나는 사도들의 대열, 무수한 예언자들의 대열, 눈부신 순교자들의 무리, 아버지를 높이 기리며 받드나이다.…"

4 아들 신부가 죽음의 땅으로 가는 것을 극력 반대했으면서도, 순교했다는 그 한 마디 소식에 그저 하느님을 찬미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그런 어머니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제의 해를 지내고 있는 우리는 사제들과 사제들의 부모님들에게, 특히 어머니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분들을 위해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들과 이분들의 부모님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이 분들을 위해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5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자발적인 교리 연구를 거쳐 1784 년에 이승훈이 북경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영세 입교한 후 서울에서 동료들에게 세례를 주고 모임을 가짐으로써 마침내 평신도들로 교회 공동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목자 없이 출발한 신자 공동체는 잠시 동안 두 분의 중국인 신부를 모실 수 있었을 뿐, 1836 년 모방 신부의 입국으로 시작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40여 년 동안 평신도들만의 공동체로서 신앙을 가꾸며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6 주문모 신부 입국 초기에는 신부를 피신시키기 위해 신도들이 대신 붙잡혀 매 맞아 죽기까지 했으며, 교우들의 핍박을 덜어주기 위해 목자들이 스스로 관가를 찾아 자수하고 순교한 일도 있었습니다. 신자 공동체는 성사의 은총을 받으려는 열망으로 주교, 신부들을 영입해 들이기 위해 북경 삼천리 길을 걸어서 오가면서 교황님께, 또는 북경 주교님에게 눈물겨운 호소로써 다가갔고,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영입해온 선교사들이 한꺼번에 참변을 당하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이 땅의 신자 공동체는 시련을 딛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세례 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했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7. 신앙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생활은 과연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례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들로 새로 태어났고 그리스도의 지체요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 성직자, 수도자와 함께 교회를 성장시키며 세상을 변화시켜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입니다. 곧 성직자, 수도자와 함께 공동 책임을 지며 서로 보완하여 교회와 세상을 복음화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8 특히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 현장은 평신도 고유의 영역이고 우리는 이러한 생활 현장, 곧 이 세상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개선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아모 5, 24 참조)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이웃의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우리들 평신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는 희망과 사랑의 표지요 원천으로서 세상의 모든 분야에 현존하게 됩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7항)

9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 우리는 과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혹시 교회의 봉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면 자신의 생활 현장에서 다 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해도 된다거나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은 따로 떼어 놓아도 된다거나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0. 우리는 과연 일상생활에서 의식주와 여가 생활, 에너지 소비, 자원 재활용, 등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검소한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한 마디로 우리 생활 방식은 과연 얼마나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며 복음적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 우리 자신이 복음화 되어 세상을 복음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며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구원 받는 길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순교 선열들이 목숨까지 내 놓으며 걸어간 길도 이러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복음말씀처럼 "하늘과 땅은 사라질 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하느님의 말씀"(마르 13,31 참조)을 따라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 바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12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의 말씀 한 구절을 말씀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온 세상에 불을 놓을 것입니다." (서한 368 참조)

감사합니다.